

Wendy L. Widder 박사, Daniel, 세션 8, 다니엘 9장과 5장, 겸손한 왕과 취소된 하나님의 능력

© 2024 웬디 위더(Wendy Widde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다니엘서에 대해 가르치는 Dr. Wendy Widder입니다. 이것은 세션 8, 다니엘 9장과 5장, 겸손한 왕과 취소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번 강의는 다니엘 나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다니엘 나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장의 길이는 27절에 불과하지만 구약성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네 구절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강의를 위해 그것을 따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이 장의 가장 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장은 회개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이 장은 다니엘의 환상이 포함된 다른 장들과 다르다. 따라서 다니엘의 환상에는 4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는 왕국의 상징적 표현을 봅니다. 7장과 8장에는 상징적인 환상이 나옵니다.

9장에서 그는 뭔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는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에 가깝습니다. 그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나 9장에서 실제 계시, 즉 흔히 환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4~5절 길이에 불과합니다.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계시에 대한 20절의 큰 도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 장에서 작성된 대부분의 글은 마지막 네 구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의 가장 큰 부분인 첫 번째 부분이 논의되지만 이는 일종의 도입부로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끄는 70주에 도달하기 위해 다소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나는 본문의 내용을 정의하고 가장 긴 부분에 상당한 시간을 주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니엘의 네 가지 환상 경험 중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달음이나 계시, 즉 그가 받는 구두 계시에 가깝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맥락에서 이 환상은 초점을 계속 좁힙니다. 그래서 7장에서 우리는 성소의 황폐함, 앞으로 일어날 파괴,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 치하의 압제에 대한 약간의 소개와 함께 우주적 초점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약간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장에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날 파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9장에서 우리는 성전이 파괴되는 일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10장부터 12장에 이르면 우리는 성전이 파괴되거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상이 실제로 하는 일은 역사적 배경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세계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니엘의 환상은 우리에게 유대 역사의 한 시기, 이스라엘 역사의 한 시기, 정말 끔찍했던 시기, 안티오코스 4세 치하의 기원전 2세기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묘사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백성을 억압하는 통치자, 악한 통치자의 성경적 패턴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정점에 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은 꽤 훌륭하고 균등하게, 균등하지는 않지만 꽤 명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문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머지 장에서 일어날 일의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고백하는 긴 고백인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그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장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에서 우리는 이 계시를 받습니다. 먼저 공개를 수행하는 캐릭터인 가브리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실제로 22절에서 시작하여 27절까지 계시를 줍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회개의 맥락을 살펴보고, 회개 자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강의를 위해 계시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아밋 족속으로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에서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여호와와 말씀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나기 70년 전에 반드시 지나야 하리라. 그 후에 나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주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기도와 간구로 그분을 찾았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시나이다.

내 생각엔 내가 거기까지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멀리 갔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 두 구절에서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시공간적 언급이나 그가 마지막에 보게 될 그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전 두 환상은 벨사살 통치 기간에 정해졌습니다.

지금은 다리우스 원년입니다. 글썄, 우리는 전에 다리우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왕국이 다리오에게 넘어간 5장의 끝 부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는 다리오가 왕이었으며, 그 후 이 장까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연대순으로 볼 때, 우리는 책의 연대순의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다리우스의 첫해에 이제 우리는 다리우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가 아하수에로의 아들이라고 들었고, 어떤 버전에서는 크세르크세스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메디아 출신이요, 갈대아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얻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벨사살 왕 제3년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얻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계보적 정보를 얻습니다.

해설자는 왜 우리에게 다리우스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메디아의 다리우스처럼 약간은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몇 챕터 동안 이 사람을 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왜 다리우스 왕이나 메대 왕 다리우스만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 모든 다른 정보가 있습니까? 몇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우스를 아하수에로, 즉 크세르크세스와 연결함으로써 이는 그의 페르시아 역사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 왕조에서 흔한 이름이 되었고, 다리우스는 페르시아와 연결됩니다.

제가 보기에 다리우스가 키루스라면 그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출신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메디아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이 왕이 페르시아 왕족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가 메디아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가 메디아인이자 페르시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어머니는 왕족이었으므로 왕족은 계속됩니다.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동적입니다. 왜 안 돼? 그는 왕이었습니다. 역사상 이 모든 사건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반복되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활동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리우스가 왕이 되는 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왜 단순히 그가 바벨론의 왕이 되었다고 말하거나, 그가 왕이 되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까? 왜 칼데아 왕국을 다스리는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추가 정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왕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다니엘서의 일부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리우스가 왕이 되었고, 칼데아 왕국은 사라졌고, 이제 우리는 다음 왕국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왕과 왕국의 흥망성쇠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독자들에게 그가 메디아 사람이고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까? 다시 한 번 기억하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따르면 바빌론은 메디아 왕과 바사 왕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저자는 그 예언의 성취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 첫해에 여기서는 실제로 두 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 원년에 우리는 이 족보에 관한 정보를 얻었고, 다시 그의 통치 원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그의 통치 첫해에 그 족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그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다리우스가 키루스라면 그의 첫 해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기원전 539년에 있습니다. 그럼, 기원전 539년이 왜 중요합니까? 바벨론이 무너진다. 미디어, 페르시아가 정상에 오른다.

결국, 고레스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539년은 강제 유배기간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날이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시간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강제 유배는 끝났거나 거의 끝났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회복, 곧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게 그의 시간이야. 이제 그의 위치를 살펴보자.

그는 우리에게 지리적 위치를 알려주지 않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는 어디에 있나요? 그는 두루마리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두루마리 외에 어떤 모양이었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레미야서의 분량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의 황폐가 끝나기 전에 지나야 할 연수에 대해 예레미야서에서 구체적으로 읽거나 이해하고 있습니다. 글썄요, 예레미야서에는 다니엘이 70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히 나오는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서에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후에 끝날 것이라는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서 다니엘이 읽을 수 있었던 두 곳은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한 곳입니다. 이것은 유배되기 전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을 통해 유다가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의 땅을 멸망시키고 벌하시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징벌하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70년 안에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에서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을 하는 선지자이지만 포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갔다가 이집트에 있었지만 바벨론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그곳 지역사회에 편지를 보내 그들이 정착하여 집을 짓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70년 동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제 시간에 어디에 있나요? 기원전 539년, 다리우스 원년, 복원 직전.

그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그는 파멸과 황폐가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글썄요,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시간을 알아낼 수 있지, 그렇지? 그는 지금이 몇 시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메디아 페르시아 왕에게 형벌을 받았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글썄, 사람들은 또한 회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기도하고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마음을 알았을 것이며,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충실하여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기도할 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9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회복이 필요하지만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고백하며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고 기도로 그분을 찾습니다. 그는 베옷을 입고 재를 입는다.

그는 진지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 그는 고백하라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응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섹션의 끝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의 실제 기도로 시작하여 19절까지 이어집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주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과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며. 그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반역하고, 주의 계명과 규례를 버렸습니다.

예언자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의는 주께 속하고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사오니 오늘과 같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온 이스라엘

곧 원근에 있는 모든 지방에서 너희가 쫓겨난 자들이 너희에게 반역을 행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들을 쫓아낸 것과 같으니라 .

오 주님, 우리에게는 공개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감사하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긍휼과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배반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돌이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저주와 맹세가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이는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음이라. 그분께서는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 통치자들을 쳐서 하신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은 없었느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죄악에서 돌이켜 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재앙을 예비하여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시므로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름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우리가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모든 의로운 일을 따라 주의 진노와 분을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모든 사람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자비를 구하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당신 앞에 간청하는 것은 우리의 불의 때문이 아니요, 당신의 크신 긍휼 때문입니다. 오 주님, 들으소서. 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 주님,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며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이 됨이니이다.”

이것은 참으로 고백적인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 많은 반복이 있고, 널리 퍼져 있는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에 가장 잘 접근하는 방법은 다니엘이 모든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고, 그런 다음 그가 요청하는 간구가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14절까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간구, 곧 그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과 16장에는 이 둘 사이에 제가 다리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방금 고백한 내용을 검토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이 두 가지를 연결합니다.

그는 고백하고, 애원하고, 애원하는데, 그 주제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구성 요소는 모두 듣기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뉘앙스를 포착하기 위해 약간 다르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듣다, 듣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마(shama), 더 나아가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 모든 단어는 듣다, 듣다 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의 고백에서 다니엘은 우리가 듣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간구할 때, 그는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간절히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세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기를 절실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이 기도 전체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먼저 고백서 4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듣지 않았다는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누가 듣지 않았는지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듣지 않았는지 말해 보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기도가 실제로 구약성서에 나오는 몇 가지 다른 기도와 유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청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의 이 기도는 느헤미야 9장, 그리고 에스라 9장의 기도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두 9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유배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망명 생활에서 곧 돌아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훌륭한 고백 기도입니다. 고백, 회개.

일부 학자들은 이를 참회의 기도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특징을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9장을 읽은 후에 다른 두 장을 읽으면 같은 내용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이 세워지고 백성이 순종하고, 듣고, 듣고, 듣도록 부름을 받은 신명기의 언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도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의 참고 사항입니다. 괜찮은.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을 듣지 않았습시다.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으신 주님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영어로 awesome이라는 단어가 정말 희석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식사가 좋았다면, 아침 식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awesome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일몰을 묘사할 때 awesome을 사용합니다. 아침 식사와 일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wesome은 산을 묘사하지만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희석되어 있습니다. 거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예,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Awesome'은 두렵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경외심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놀라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Goldingay가 이 시작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장엄한 측면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용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장엄한 면은 외국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계속해서 인정할 것은 바로 그러한 실패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고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기도하고 있으며, 자기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자니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요? 그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동일하고 동일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언약을 지키시나 우리는 그런 백성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정말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한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는 하나님의 그릇이 거룩한 곳에 사용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곳에는 등잔대와 상과 분향단만 있을 뿐입니다. 그게 다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금그릇들이 등대가 있는 곳으로 옮겨지고 손은 등대 반대편에 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제가 너무 많이 읽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의 조합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왕궁 회벽의 등대 맞은편에 있는 이 묘사가 부분적으로, 단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구체적으로 그의 성소를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문자적인 등불이나 등대에 대한 거의 모든 언급은 성소, 특히 중앙 성소인 성소에 있는 등불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지만, 거기에는 세 개의 가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인 오경에는 성소에 있는 등대에 관한 지침이 포함된 거의 40개에 달하는 참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두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일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등대는 예물 빵이 놓인 예물 상 앞이나 맞은편에 세워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장의 서술자는 이 설명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성전을 강조했습니다.

이 그릇들은 성전에서 나온 것인데 벨사살과 그의 손님들이 마시는 그릇은 금 그릇이라고 벨사살이 명시했습니다. 금 그릇은 중앙 성소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문맥에서 화자는 손가락 반대편에 등대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손가락이 벽에 글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가정합니다.

내 생각에 화자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왜 여기에 계시는 걸까요? 이것이 나머지 설명입니다. 이곳은 어디야? 그 글은 왕궁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불필요한 정보입니다. 잔치를 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벨사살. 당신은 그것이 그의 궁전에 있다고 가정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다른 곳에 있다면 왜 우리가 신경 쓰겠습니까? 이 정보를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의 궁전. 제 생각엔 궁전으로 번역된 단어가 아람어 헤칼라 로 제대로 번역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전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본문 2절과 3절에 두 번 나타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손이 글을 쓰고 있는 왕궁을 가리키는 이 단어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기 전에 두 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 그리고 화자는 우리에게 그런데, 당신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해설자가 요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이 자기 왕궁을 위하여 모은 그릇들이 하나님의 전 곧 하나님의 집에서 와서 자기 왕궁 곧 자기 집으로 가져왔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데려오시면서 하나님은 벨사살의 집이나 궁에 임하셨습니다.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도 발을 디딘 적이 없었으나, 그 그릇들을 사용할 때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을 자기 문앞으로 모셔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 그릇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영토에 임하셨습니다. 그 그릇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왕은 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그가 내리는 심판은 궁극적으로 그 그릇들이 정당한 위치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땅으로 회복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다양한 움직임은 조각입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화자가 포함하고 있는 추가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이 손가락들이 촛대 맞은편 왕궁 회반죽에 글씨를 쓰고 있었다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벨사살의 집에 임하사 그 집을 지키시니라

관찰은. 그러면 이 장에는 세 가지 연설 중 첫 번째 연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연설하는 사람은 여왕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9절에 벨사살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의 색깔이 바뀌었다.

그의 영주들은 당황했다. 왕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말미암아 연회장에 들어가서 이르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놀라게 하거나 당신의 색깔이 바뀌지 않도록 하십시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네 아버지 시대에 그에게서는 신들의 지혜와 같은 광명과 총명과 지혜가 있었느니라. 그리고 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박수와 마술사와 갈대아인과 술객의 대장으로 삼았느니라.

왕이 벨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고 수수께끼를 풀며 문제를 해결하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면 그가 해석해 줄 것입니다. 이 여왕은 누구입니까? 벨사살의 아내들과 첩들은 이미 잔치에 참석하고 있었고 이 여자는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왕의 명단에서 더 높은 사람인 태후일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특별한 초대나 소환을 받지 않고도 왕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마도 그에 대해 약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여왕 어머니가 가졌을 것입니다. 해설자들은 여왕의 어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약간 냉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매우 동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비꼬는 듯한 느낌을 듣는 경향이 있다. 당신의 왕국에는 아마도 그가 알았어야 했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가 왜 그것을 알았어야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가 이미 들어본 언어로 다니엘을 칭찬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다니엘의 지속적인 특성이었습니다. 문제는 벨사살이 다니엘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왕의 시작 말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들립니다.

왕의 나라에 벨사살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니엘이 여왕이 묘사한 이 모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벨사살도 알았어야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왕은 적어도 종이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벨사살의 아버지의 최고 지혜자였습니다. 나는 역사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느부갓네살로부터 수십 년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내러티브 측면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서사를 보면, 아버지의 수석 마술사가 누구였는지 아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추측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아버지를 반복한다는 사실은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왕의 나라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생각엔 이것이 이 장에서 벨사살의 행동을 설명할 것 같습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다니엘이 그의 아버지에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누구인지 무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자기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말할 때, 우리는 그가 그렇게 많은 말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13절부터 16절까지 대답합니다. 그런 다음 다니엘은 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아버지 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왔던 유다 포로 중 하나 다니엘이냐 나는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뛰어난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지금 박사들과 마술사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되 능히 그 일의 해석을 보여 주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해석도 하고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가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네 목에 드리우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리라.

자, 저는 이 장에 세 가지 연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언급하지 않은 것은 등장인물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내레이터는 단지 줄거리를 진행시키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과 동기를 압니다.

따라서 내레이터가 등장인물에게 말을 허용할 때,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내용과 그것이 그들의 동기와 생각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듣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벨사살이 다니엘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 말한 것에서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다니엘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들었나요? 다니엘이여, 당신은 유다 포로 중의 하나입니까? 여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여왕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왕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왕국에 남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했고, 그가 당신 아버지의 수석 마술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벨사살은 다니엘아, 네가 내 아버지의 마술사요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르되, 네가 유다 포로 중의 하나니 다니엘이냐? 글썄요,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왕비가 그의 히브리식 이름인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벨사살이 그 조각들을 하나로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내 아버지 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포로 중 하나이냐? 다시 말하지만 그게 왜 중요할까요? 다니엘이 이미 말했듯이 당신은 유다 출신이 어디입니까?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를 데려온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버지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또한 그는 그를 마술사의 우두머리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성취했다는 사실조차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단지 그를 유다에서 포로로 남겨두고 소문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저것 할 수 있고, 이것저것 할 수 있고, 문제도 풀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실제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할 수 있다면, 가서 말해주세요. 벨사살의 태도를 보면 그는 다니엘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를 알고 있으며 아버지의 존경받는 종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귀하게 여기던 하나님의 그릇 벨사살이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 기구들을 하나님의 창고에 넣어 귀히 여길 줄 알았으나 벨사살은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벨사살의 연설입니다. 다니엘의 말을 들어보자. 이제 벨사살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는 해석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아주 긴 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17절부터 28절까지의 장에서 가장 긴 부분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당신의 예물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보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그 글을 왕께 읽어 드리고 그 해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다니엘은 방금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 글이 말한 것을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안 돼.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권과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나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원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가 원하는 사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분은 원하시는 자를 높이시고, 원하시는 자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의 영이 강박하여 교만하게 행하였으므로 그가 그 왕위에서 물러나고 그의 영광도 빼앗겼느니라. 그는 인류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 있더라. 그는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벨사살이 요구하지 않은 오랜 역사 교훈을 얻었을 뿐입니다. 22절, 그 아들 벨사살아 네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 곧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그의 집의 기구를 네 앞에 도로 놓았느니라 너와 네 주와 네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들에게서 포도주를 마시고 너는 보거나 듣거나 알지 못하는 은, 금, 동, 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네 호흡이 그의 손에 있고 그의 길이 네 모든 길이며 그의 모든 길이 그의 길인 신을 너는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읽기와 해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에 대한 역사 수업을 받았고, 벨사살에 대한 기소를 받았습니다. 이제 마침내 다니엘이 비밀을 누설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24절, 그 앞에서 손을 보내시매 이 글을 쓰셨느니라.

이것은 글이니라, 많음, 많음, 테겔, 파신. 일의 해석은 이러하니라 많은 사람이여 하나님은 왕의 나라의 날을 계수하여 그 나라를 끝나게 하셨느니라 데겔아, 네가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드러났느니라.

파레스야, 네 나라가 나누어져 메대와 바사에게 주어졌느니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낭독과 해석입니다. 그는 왕의 선물을 거부했고 일부 사람들은 다니엘이 왕에게 매우 간결하고 통명스럽고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물은 자신을 위해 보관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는 벨사살이 자신을 대했던 방식으로 실제로 벨사살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자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하나님의 기구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벨사살의 원래 인사말인 "당신도 포로 생활에 속해 있습니까?"가 무시되었다면, 여기서 다니엘의 반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왕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과 신성한 것과 자기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의 신성한 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느부갓네살에 대한 역사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나 역사 수업을 하는 이유는 벨사살의 행동이 왜 그토록 지독했고, 따라서 그가 심판을 받는지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냥 들어와서 글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당신이 위대한 왕의 후계자라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는 위대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회개하고 자신이 의존함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 분은 당신 아버지였어요.

벨사살아,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느부갓네살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에게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의 교만함을 질책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의 그릇들을 더럽힘으로 하늘의 주님 앞에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헛된 우상을 섬겼으며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의 생명을 불드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은 단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기회를 이용하여 이 두 인간 왕 사이의 대조를 이끌어 냅니다. 그들의 위대함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흥미 롭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업적으로 인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벨사살아, 우리는 19세기까지 그의 이름조차 몰랐지만 그는 합법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 큰 술취한 잔치를 준비하는 것 외에는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찬탈자의 대리인 아들입니다.

다니엘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 생각엔 대조가 있는 것 같아요. 벨사살 또는 느부갓네살은 위대한 왕이었고 그는 자신의 위대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왕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평소보다 좀 더 선지자처럼 행동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벨사살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글을 해독합니다.

우선, 그는 손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식별합니다. 이 심판, 이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3개의 단어 중 하나만 두 번 나타납니다.

그것은 약간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단어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람어로 쓸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넣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려면 여기서 약간의 언어 수업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왼쪽에는 다니엘이 읽고 있는 아람어 글자가 있습니다. 전체 비문으로는 그렇게 보일 것이며 아마도 여기에 공백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함께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사실인 글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언어 수업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이 책을 읽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아마 당신이 읽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왜 이것이 그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도 읽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읽을 수 없었습니까? 영어로 된 예를 들어보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것은 영어 문장의 자음들만 드린 것입니다.

자음만 알려드린 이유는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자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자음뿐입니다. 모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단어에 모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모음이 있거나 발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원어민들은 모음만 봐도 무슨 모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어를 어떻게 말하는지 알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믿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읽나요? 몇 가지 옵션이 있으며, 영어가 모국어라면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존은 자전거를 탔다. 제인은 책을 읽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자들은 왜 그것을 읽을 수 없었을까요? 그것이 그들의 모국어라면 왜 그들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내가 말했듯이, 그들은 모두 함께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그것을 주면 조금 더 까다로워집니다. 공백을 넣지 않고 모두 함께 실행했다면 조금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한두 문장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왜 어려웠는지에 대한 또 다른 제안은 어쩌면 이런 식으로 쓰여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위아래로 쓰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가서, 오, 존, 책을 읽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퍼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자들이 이것을 읽을 수 없었던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그것을 읽을 수 없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내용을 생각해 낼 수 있다고 가정 해 봅시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것이 직접적인 비교는 아니지만 매우 다른 언어들 사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영어로, 내가 당신에게 명사 scribe를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좋습니다. 서기관은 귀하의 명사입니다. 영어에서는 부분을 추가하여 동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새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사물을 추가한 동일한 어근이 있고 이제 동사가 있습니다. 명사와 동사는 같은 어근을 사용하지만 사물을 조정하여 다른 종류의 단어를 만듭니다.

자, 히브리어는 이것과 정확하게 유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즉 아람어에서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 히브리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들은 루트 시스템인 단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 글자의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sh 소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k, d, sh가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입니다. 거룩함, 거룩함, 거룩한 것들과 관련된 뿌리입니다.

그 정도는 말해줄게. 이제 그 자음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음이 필요합니다.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다른 종류의 단어를 만들기 위해 다른 모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o-dash는 명사와 동일하거나 거룩함을 의미하는 명사와 같은 모음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명사입니다.

어근에 사용되는 모음의 패턴은 일반적으로 명사를 만듭니다. 형용사를 만들고 싶다면 qa -dash, ae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형용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말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동사를 만들고 싶다면 ca-dash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음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비문과 다니엘이 말한 내용에 이르면 다니엘이 그것을 왕에게 읽어 줄 때 명사인 메네, 테켈, 바센과 그 도량형과 도량형을 읽습니다. 이는 쿼터 니켈 다임(Quarter Nickel Dime)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지, 그렇지? 그는 단지 세 개의 명사를 나열했습니다. 그가 왕에게 읽어 준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그가 그것을 해석할 때, 그는 동사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는 메네, 테켈, 페레스라고 말합니다. 해석하면 메네(mene)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왕의 나라의 날을 세어 그것을 폐하셨느니라. 테켈아, 너를 달아 보니 부족함이 드러났다.

당신의 왕국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수수께끼의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현자들은 그것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까? 만약 그들이 이것을 보고 있다면 그들은 메네, 테겔, 파르센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말한 해석의 의미를 알지만 왜 이것이 선택되었는지, 왜 이러한 가치 있는 단어, 이러한 무게와 측정 단어, 왜 가치 있는 단어, 동전, 평가, 평가, 왜 사용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의 잔치와 신성 모독의 맥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는 책을 쓴 놀란 피웰(Nolan Feewell)은 이 단어들의 선택과 그 뒤에 숨은 이미지가 벨사살의 범죄에 대한 전체 장의 문제가 가치임을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치의 문제 또는 가치에 대한 실패가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서술자는 벨사살의 행동과 다니엘의 말을 사용하여 아버지의 모범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왕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성전의 신성한 그릇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가 존경하는 수석 마술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높이는 법을 배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은 벨사살의 권세와 왕국이 실제로 빼앗기는 것으로 끝납니다(29-31절). 그러자 벨사살이 명령을 내리자 다니엘은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금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그가 왕국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리라는 포고령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나이는 약 62세였습니다.

좋습니다. 짧은 섹션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몇 가지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상을 줍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언이 있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다니엘은 방금 당신의 왕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벨사살이 베푸는 보상은 무엇이든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문이나 해석에 대한 벨사살의 반응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다니엘에게 보상할 뿐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자료에서는 바빌론이 전투 없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역사적 자료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해설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가 관심을 두는 것은 바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뿐이다. 이 판단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미디어 사람 다리오가 62세쯤에 나라를 얻었습니다.

미디어 사람 다리우스의 정체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다리우스가 여기서 더 주인공이 되는 다음 강의에서 이에 대해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는 방금 소개되었습니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서술자가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왕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대아에서 왕국을 옮겨온 지 얼마 안 되었고, 이제 우리는 미디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좀 지저분해지는 미디어-페르시아.

하나님은 왕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디어 왕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는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디어 사람 다리우스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다리우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미디어 왕을 강조합니까? 바벨론이 왜 미디어 사람들에게 함락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실제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둘 다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들을 불러들임으로써 궁극적으로 바벨론을 멸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사람 다리우스에 관해 이야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미디어 사람 다리오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그가 62세 정도라는 코멘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림수에 대한 설명을 사용합니다.

왜 그가 60세쯤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62 정도라는 말이 정확하죠? 일부 평론가들은 적어도 그 날에는 그가 노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므로 이야기가 고레스로 넘어가기 전에는 그리 오래 통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글썄, 그것은 나에게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 60세라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2년이면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내 생각엔 화자가 특정한 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리우스는 실제로 나이가 무엇이든 62세에 가까우므로 서술자는 그가 약 62세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62세에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글썄, 적어도 내레이터의 말에 따라 퍼즐을 풀면 62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2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내레이터가 요점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라는 요점이 있습니다.

내 생각엔 Carol Newsome의 OTL 해설에서 이것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비문은 한 미나, 한 세겔, 두 반 세겔이었습니다. 1미나는 60세겔의 가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는 50달라입니다. 우리는 60달라짜리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1세겔은 분명히 1세겔의 가치가 있습니다.

페레스의 복수형, 즉 반 세겔과 반 세겔은 1세겔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비문에서 숫자 62를 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우스의 나이는 약 62세로, 어떤 창의적인 방식으로 징조의 의미의 또 다른 측면을 요약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John Goldingay의 인용문입니다. 다리우스의 것으로 추정되는 연도는 징조의 의미의 또 다른 측면을 요약합니다. 그는 벨사살에게 징조를 성취시킨 실제 인물이다.

그렇다면 그는 62세 정도였습니다. 왜 62세가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합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 일을 성취한 사람이예요.

실제로는 60세였을 수도 있지만 내레이터는 대략 62세 정도라고 말합니다. 요점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이 장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음, 우선 이 혈관이 중요해요.

혈관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책에서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누구의 그릇입니까? 1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릇들이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시니라.

5장에서는 벨사살이 그들을 데려가고, 하나님은 벨사살에게 그 일로 인해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또한 왕국의 전환을 경험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 장에서 우리가 몇 장을 더 읽을 때까지 실제로 인식할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벨사살이 프로토타입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과 대조되는 인물임을 기억하십시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그의 능력과 위대함의 근원으로 인정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벨사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흔들고 심지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모독적이고 반항적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신성모독하고 반항적인 왕을 이 책에서 처음으로 엿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묵시적인 환상에 이르게 되면, 그 환상은 벨사살 원년, 즉 벨사살 원년과 제3년에 설정될 것이며, 실제로 벨사살을 거의 좋게 보이게 만드는 다니엘 왕들을 시각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무서운 왕입니다. 그의 후임자들은 그것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따라서 그는 중요한 문학적 인물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책에서 이 장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가 많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모든 일의 근원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신 것들에 대해 정말 좋은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벨사살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와 사자 굴에 있는 다니엘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해 가르치는 Dr. Wendy Widder입니다. 이것은 세션 8, 다니엘 9장과 5장, 겸손한 왕과 취소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